



민주당 복당 무산 강운태 前 장관

강력 반발 “무소속 출마”

김현미·김영환씨도 ‘복당 불허’

강운태 전 내무부 장관의 통합민주당 복당이 무산되면서 광주 남구의 선거 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5일 강 전 장관의 복당 신청을 불허, 공천 신청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신계룡)의 ‘강 전 장관 복당 불허’ 결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강 전 장관의 복당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불허’ 결론을 내렸다.

강 전 장관은 통합민주당 복당 신청과 함께 광주 남구에 공천을 신청해둔 상태였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강 장관은 경쟁력이 있는 후보지만, 당의 쇄신공천 분위기에 비해 복당을 허가해주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그러나 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의를 저버린 소아적인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탈당 전력을 들어 복당을 거부한 것은,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강력한 야당 건설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통합민주당에 입당하고자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강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장관의 경우 높은 인지도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최근 광주 남구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무소속 출마를 단행할 것이라 관측이다.

실제로 강 전 장관의 한 측근은 “6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남구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강 전 장관 외에 김선미 의원(경기 안성), 김영환 전 의원(경기 안성 상록갑)의 복당 신청도 불허, 공천신청을 무효화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4·9 총선 현장

양형일 ‘노인 복지시설 확충’ 공약 발표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5일 동구를 권역별로 나눠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재가 치매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복지 공약을 발표.

양 의원은 이날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회관을 건립,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지역 학계·문화계 337명 ‘장병완 지지’



○송하중 경희대 교수와 운영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정혜경 (사)대한무용협회 광주지회장 등 학계·문화예술계 인사 337명은 5일 장병완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 지지서를 선언.

이들은 이날 “장 후보는 기획예산처 장관 등 풍부한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

조영택 ‘광주 장애인체육대회 적극 지원’



○조영택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5일 광주시 장애인체육회를 찾아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

조 후보는 또 “국회에 입성,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제도 등을 개선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다짐.

김영진 ‘상무시장 진입로 확장에 최선’



○김영진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5일 상무2동 상무시장을 방문, 상가번영회 및 도로확장추진위원회 임원들을 만나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김 후보는 “상무시장 진입로는 인도가 없어 지역민과 학생이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상무시장 진입로 확장을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

유종필 ‘폭리정책 시정에 앞장설 터’



○유종필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5일 서민들의 지갑을 얇아지게 하는 폭리 정책을 시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날 “이명박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주유소 기름값의 경우 1천700원대로 오르는 등 정책과 시장이 따로 놓고 있다”면서 “서민 살림살이를 광학하게 하는 정책을 고쳐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



김영룡 ‘마록동 탄약고 이전 책임진다’

○김영룡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5일 마록동 공군 탄약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약고를 반드시 무안공항 인근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

김 후보는 “10년 넘게 논의돼온 이전 문제가 답보상태에 있고, 더구나 광산구로 옮기겠다는 발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국방부 차관 시절 무안공항 인근에 150만평의 유휴부지를 확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지문제를 이미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

김동철 ‘공인중개사 위상 강화 노력’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은 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 확장·이전 개소식에 참석, 공인중개사의 위상 강화에 힘쓰겠다고 지지를 약속.

김 의원은 이날 “지난 17대 국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위상 강화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토록 하겠다”고 약속.

임현모 ‘산·학 인재양성 협조체제 구축’



○임현모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5일 지역 청년들과 취업정책 간담회를 갖고 “광주지역 대학과 기업간 인재양성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

임 후보는 “500개 국내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대학과 기업이 서로 살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송두영 ‘지속가능경영 언론상’ 수상



○송두영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가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의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가 수상하는 ‘지속가능경영 언론상’ 수상자로 결정.

송 후보는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시절 지구 온난화 문제와 이를 예방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주제로 한 ‘STOP! CO2, 친환경이 경쟁력이다’라는 기획물을 4개월간 한국일보에 연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



김태욱 ‘광주 동구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표밭같이 들어간다.

김 후보는 이날 정두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소식에서 “호남 민심의 목소리를 중앙 정부에 전달, 소통시키는 역할을 맡겠다”면서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 후보를 믿어달라”고 호소.

김휴섭 ‘기업환경 개선’ 의견 수렴



○김휴섭 광주 광산구를 예비후보는 5일 하남공단내 무진정밀을 방문, 임직원들과 만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김 후보는 이날 “중소 기업 여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하다”면서 “하남공단내 보육 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지지를 당부.

오형근 ‘북부소방서 근무환경 개선 지원’



○오형근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4일 북부소방서를 방문, 근무환경을 돌아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

오 후보는 “주민의 곁에서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하며 참된 봉사행정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며 “국회에 진출하면 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범석 ‘다양한 노인 복지정책 발굴’



○정범석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5일 남구 죽산경로 복지원 등을 찾아 노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얼굴알리기 행보를 본격화. 정 후보는 이날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정기남 ‘사랑의 식당’ 배식 봉사활동



○정기남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5일 진월동 포도원 교회에 있는 ‘사랑의 식당’에서 독거노인 및 고령 어르신들을 모시고 배식봉사를 하며 바담민심을 수렴.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인 및 장애인 전용 저상버스를 셔틀버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

홍행기자 redplane@

한나라 ‘野 공천 칼바람’ 불똥 튀나

‘개혁 공천’ 이슈 부상 영남 물갈이 영향 주목

“우리도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하는 것이 아니냐.”

비리·부패 전력자의 공천 배제와 ‘호남 물갈이’ 화두로 내걸며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통합민주당의 공천 논란을 지켜보는 한나라당의 기류가 편치만은 않다.

4·9 총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혁 공천’ 이슈를 주도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나라당은 ‘금고형 이상 전력자의 예외없는 공천 배제’라는 민주당 공심위의 방침보다 이미 한 단계 더 높은 도덕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자평한다. 이에 금고형 이상 전력자는 공천 심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공천 진행상황에 대해 친이(친 이명박·친 박근혜)간 계파 나눠 먹기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이 같은 사실은 모두 잊혀지는 형국.

당 지도부조차 “계파색 공천”, “감동 없는 공천”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정도다. 또 “그랜드 디자인도 없고, 테마도 없다”는 공천에 대한 비판도 당 안팎에서 공공연히 제

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칼바람’이 4일부터 2차 심사가 본격화된 영남권 물갈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현재 거론되는 대로 금고형 이상의 전력을 가진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예외없는 물갈이를 단행할 경우 이상득 국회 부의장 공천 이후 내심 안도하고 있는 영남권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물갈이 폭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다른 당직자는 “나눠먹기 기조로 갔다가는 후유증이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저렇게 박제승 공심위원장이 하자는 대로 하면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원칙에 맞게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의원은 한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통합민주당의 경우 개혁공천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도 뒷받침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2-722-0100

11215구로·91919